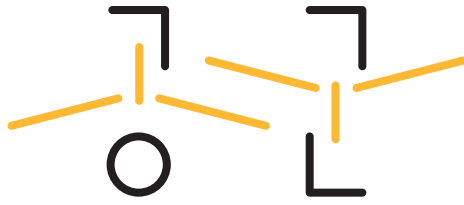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21
11
5 2 1

<http://afzine.co.kr>



Contents

04	특별 인터뷰	국민조종사, 대한민국 가을 하늘을 날다
12	기획특집	구름보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지키는 사람들
20	기획특집	공군본부 북카페 休를 소개합니다!
<hr/>		
24	특별기고	내게 '첫 공군'은 블랙 이글스였다 (채널A 강은아 기자)
26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21화 박재삼(朴在森) 시인 편
32	내 옆의 공군인	항공촬영사 위인태 상사
38	우리 부대는	제7항공통신전대
42	지금 이 순간!	공군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소식



표 지(앞) 한반도 영공을 수호하는 천궁(병장 황현동)

표 지(뒤) 블랙 이글스의 단풍 에어쇼!(자토 작가)

발 행 일 자 2021년 11월 1일(통권 제521호)

발 행 대한민국 공군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이상규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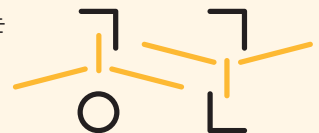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대위 최지형

디자인·인쇄 국방출판지원단(F21100412)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 | | | |
|-------|----------|---|
| 52 | 한 달, 한 권 | 내 삶의 독해력 |
| 54 | 명상을 말하다 | 내 생각 바라보기 |
| 56 | 영화로운 나날 | 신세대라는 말을 아시나요? |
| <hr/> | | |
| 58 | 생각하는 그림 | 일장기 위에 덧그린 태극기 |
| 60 | 공군인의 편지 | 돼지국밥에 소주 한잔해요
(방공관제사령부 31전대 상사 이종민) |
| 61 | 책읽는 공군 | 허식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방공관제사령부 31전대 중사 최진우) |
| 62 | 수용의 미학 | 실수를 수용하자 |
| 63 | 마음의 소리 | 독자 참여 코너 |



국민조종사, 대한민국 가을 하늘을 날다!



공군은 지난 2007년부터 ADEX 행사와 연계하여 공군의 임무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국산항공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민조종사를 선발하여 국산 항공기를 타고 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제8기 국민조종사는 총 2,143명이 지원하여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인 535:1을 기록했다. 지원자들은 치열한 경쟁 끝에 서류심사와 화상면접, 비행환경적응훈련 등 엄격한 과정을 거쳐 4명이 최종 선발됐다. 항공공학 전공자로서 국산 초음속기 개발이 갖는 위대함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힌 **강성태(39세, ㈜공부의신 대표)**, T-50 기체 설계개발에 참여했던 항공기 엔지니어로서 예순 살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공분야에 대한 애정으로 지원한 **강해구(63세, ㈜한국항공기술케이에이티 연구소장)**, 코로나 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용기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원했던 **김보준(32세, 간호사)**, 두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6번 도전 끝에 선발된 **손효영(42세, 구직 중)** 등 4명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번 코너에서는 국민조종사 4명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국민조종사에 도전하게 된 계기부터 실제 비행을 하고 난 생생한 소감까지 들어보자.



강성태



강해구



김보준



손효영

AF 제8기 국민조종사 여러분!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성태 : 제8기 국민조종사 강성태입니다. 저는 공신닷컴이라는 교육 콘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에게 공부법과 영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학생들에게 ‘도전해라, 그러면 못 해봤다는 후회는 없을거다’라는 동기부여식 조언을 해왔어요. 그러다 정작 제 자신이 이런저런 핑계로 오랜 꿈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지 하는 강한 다짐과 함께 국민조종사 신청 당일 곧바로 지원서를 냈습니다.

강해구 : 제8기 최고령 국민조종사 강해구입니다. 1959년생으로 만 61세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국내 항공산업의 항공기 설계개발 및 제작 현장에서 일해 온 유무인 항공기 엔지니어입니다. 서울대에서 항공공학 학사, KAIST에서 항공공학 석사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직후엔 F-16 중앙동체 제작사업에서 컴퓨터 이용 제작 기술 엔지니어로 참여한 이래 20년 넘게 항공기 설계개발 및 제작 엔지니어로 일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e-VTOL(전기 수직이착륙기) 무인기 설계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의 연구소장 겸 설계개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보준 : 저는 코로나19 격리치료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김보준입니다. 작년 코로나19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공고를 접하게 됐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코로나19 병동 의료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마스크와 온 몸을 애워싸는 방호복을 입고 매일같이 땀에 젖어 쓰러지듯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 됐지만, 단 한 순간도 코로나19 의료진에 지원하기로 결심했던 그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받아, 제8기 국민조종사로 선발되었습니다.

손효영 : 43살 두 아이의 아버지자, 제8기 국민조종사 손효영입니다. 올해 스스로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인생을 돈과 직업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가고자 파이어족으로 전직했습니다. 40살에 친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을 다시 살아보고자, 술 담배를 끊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버킷 리스트를 하나씩 이루려고 합니다. 그 중 첫 번째가 전투기를 타는 것이었는데, 일반인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에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이루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AF 제8기 국민조종사에 지원한 계기가 궁금한데요.

강성태 : T-50이 제 대학시절을 지탱해주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제가 방향을 많이 했거든요. 건강까지 해쳐가며 입학한 대학인데, 항공공학이란 전공은 너무 버거웠고 대학생활은 꿈꾸던 것과 달랐습니다. 몇몇 동기들은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생겨 자퇴하고 다른 전공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많이 흔들렸고 자퇴를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 와중에 T-50이 나왔어요. 제가 1학년 때 출시됐고, 다음 해 초도 비행을 성공하고, 그 다음해는 초음속을 돌파했죠. 한동안 저희 과에서는 T-50 얘기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수많은 엔지니어 선배들과 대한민국 공군의 피, 땀, 목숨 그 자체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공자로 가지는 자부심 그 이상이었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해내다니, 불과 50년 전 자동차도 만들지 못했던 최빈국이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해 스스로 영공을 지키다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애국심과, 항공공학도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퇴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공신이라는 교육봉사 동아리를 시작했다가 일이 커지는 바람에 전공을 끝까지 살리진 못했지만, T-50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겠죠. 그렇기에, 꼭 타보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힘겨운 시기에 학생들과 모두에게 도전 정신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강해구 : 제 자신에 대한 대내외적인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초음속제트훈련기를 몰 수 있을 정도로 멀쩡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60대 초반이지만, 아직 저는 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나이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특히 저를 포함한 우리 60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도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유는 더 있는데요. 저도 학창시절에 전투기 조종사를 꿈꿨고,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쉽게도 개인 사정으로, 꿈을 잠시 접어둔 채로 항공공학도의 길을 걸었죠. 그런 아쉬움을 이번 기회로 한 번에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항공기 기체 설계개발 및 제작 전문

가이지만, 조종사의 관점에서 항공기를 보는 법은 아직 모릅니다. 비행기의 성능과 특성, 그리고 비행할 때 조종사가 느끼는 바를 모두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한때 저는 T-50 초음속훈련기 개발사업 당시 항공기체 구조

설계 기술자로 약 2년 6개월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T-50 개발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당연히(?) T-50을 조종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8기 국민조종사 강해구와 임무 조종사 기념촬영

김보준 :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평소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좋아해 지금까지 32개국을 배낭여행했고, 250km 사하라 사막 마라톤 완주, 철인 3종 경기 완주, 제 이름으로 된 책 출간 등 다양한 경험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올해 계획했던 도전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평범했지만 소중한 우리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푸르른 창공을 가르는 전투기를 타며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을 간절히 기도하고 염원하고 싶었습니다.

손효영 : 어릴 적부터 조종사를 꿈꿔왔지만,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그래서인지, 군 생활은 공군에서 했습니다. 제16전투비행단에서 항공정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항공기를 가까이에서 본다는 것이 군 생활을 버티게 해준 큰 힘이었어요. 그래서 조종사는 아무나 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아이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럴때면 항상 되묻더라고요. “아빠 그럼 지금은 비행기 못 타?”, “지금이라도 하면 안 돼?” 언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가를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을 못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뤄내기 어려운 꿈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반쯤은 포기하고 있었을 때, 공군 국민 조종사를 알게 됐습니다. 올해로 6번째 도전인데요. 12년 동안 도전해서 이루어낸 꿈이기에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제8기 국민조종사 김보준(후방석)과 임무 조종사 기념촬영

AF 국민조종사로 선발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거나 준비하신 것이 있을까요?

강성태 : 정말 간절히 바랐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잘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가속도 훈련에서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살짝 몸만 풀고 중단해야 하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평가라고 생각하고 레버를 계속 당겼죠. 원래 훈련 수치를 훌쩍 넘어 8G까지 올라가 잠깐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준비단계까지



망쳐 더욱 긴장됐습니다. 그래서 G-LOC(중력가속도에 의한 의식 상실)에서 깨자마자 죽어도 이곳에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짧은 시간 심호흡 몇 번으로 정신력을 가다듬은 뒤 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옷을 갈아입으며 정말 놀랐어요. 몸통 둘레에 실핏줄이 수도 없이 터져 시뻘겜더라고요. 정신력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김보준 : 저는 제7기 국민조종사에도 도전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면접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죠. 이번이 2번째 도전이었기에,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마음 단단히 먹고 도전했습니다. 우선, 저는 공군의 입장에서 국민조종사를 왜 모집하는지 고민해보았고, 그것을 시작으로 공군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보며 모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공군 항공 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되는 비행환경적응훈련에도 통과하기 위해 체력단련과 이미지 트레이닝도 꾸준히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투기를 타는 것 만큼 가장 기대했던 게 가속도 훈련입니다. TV나 영화에서만 보던 전투기 조종사의 가속도 훈련을 경험하면 어떤 느낌인지 두려우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30초를 버텨야 했는데,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고, 잠시 시야를 잃기도 했습니다. 또, 끝나고 나와서 잠시 숨을 돌리고 난 뒤 급격히 피곤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비행탐승만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손효영 : 술과 담배와 이별하고, 2년 전부터 체력 향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해 달리기, 수영, 자전거, 암벽 등반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비행환경적응훈련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지난 7기 국민조종사 선발 당시에 동영상 제출과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적이 있어, 그 부분은 특히 신경썼습니다. 이번 선발 과정 중 최종단계인 가속도 훈련을 대비하며 복근과 하체 근육 위주의 고강도 훈련을 2주 수행했고, 당당히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AF 처음 항공기에 올라갔을 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강성태 : 이유를 모르겠는데 엄청 긴장했어요. 탑승 전 어쩌냐 물어보시는데 농담 반 진담 반 수능 시험 보러갈 때보다 떨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T-50은 기대보다도 훨씬 훌륭했어요. 바람이 세지 않고 조종을 잘 해주신 덕분이겠지만 너무 안정적이었고요. 우리나라 항공 기술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륙 직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학 1학년 때부터의 꿈이 20여 년 만에 이뤄지는 순간이기도 했고 이틀 전 항공우주연구원의 허가를 받아 누리호 발사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거든요. 독자 개발한 SLBM 발사 성공과 누리호 발사에 이어 국내기술의 T-50까지 직접 타보게 되니 정말 대한민국이 끝없이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강해구 : 예상보다 훨씬 조종석이 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득, 이 조종석을 설계 개발하고 제작했을 우리나라 엔지니어들과 작업자들의 노력과 고생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보준 : 처음 입어 보는 G-슈트의 낯선 착용감, 제가 앉으니 딱 차는 조종석, 각퓌에 빼곡히 들어가 있는 복잡한 계기판과 숫자들... 항공기에 올라가고 나서야 진

짜 제가 국민 조종사가 된 게 실감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방석에는 베테랑 조종사분께서 분주하게 오늘 저와 첫 비행을 함께 할 전투기의 기체를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기체 점검과 장구류 착용을 도와주셨는데, 한 대의 전투기가 비행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손효영 : 사실 공군정비병으로 근무를 한 이력이 있어 별다른 감흥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직접계 봐오던 항공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제가 봐오던 항공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전 T-59와 T-38을 정비했고 그 당시 계기판만 생각했는데 FA-50의 디지털화된 계기판에 너무 놀라웠습니다. 조종석도 생각보다 좁지 않았고, 고향에 온 듯한 포근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컨트롤 스틱이 중앙이 아닌 우측에 있는 것도 신기했고, 사진과 유튜브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에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각종 장구를 연결하는 케이블도 조종사의 안전을 더욱 신경 쓴 듯한 느낌을 받았고 기체 정비병의 도움으로 장착하는 각종 장구들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F 실제로 비행을 해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른점이 있었습니까?**

강성태 : 가상현실 같았어요. 꿈에 그리던 T-50을 탑승한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T-50 조종석의 시야는 일반 비행기랑 차원이 다르더군요. 사방이 탁 트인 넓은 유리 너머 보이는 풍경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갑탄이 절로 나왔어요. 눈이 엄청나게 부셨고 자외선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 순간이라도 더 담고 싶어서 일부러 바이저를 내리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늘에 촬영기까지 띄워 촬영해주신다 하셔서, 하늘에서 태극기를 펼쳐보려고 집에서부터 태극기를 가져갔었는데 너무 들떠서 정작 그걸 펼친다는 걸 까먹었어요. 다시 올라갈 수도 없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다음 국민조종사 분들께서 꼭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해구 : 시야가 확 트이는 조종석에서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비행은 처음이었죠. 이륙 직후에 지상에서 멀어지는 순간 약 1~2분 정도는 정말 아찔했고 무서웠습니다. 이것은 유체 속의 이동이고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야 주변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 조금 넘게 비행을 했는데, 항공기를 설계개발, 제작, 운용, 정비하는데 활용되고 적용되는 현대공학, 그 중에서도 항공 공학 엔지니어/과학자/작업자들의 위대함과 성과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공기 설계개발 엔지니어로서 그 중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는데 계기가 됐습니다.

김보준 :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됐지만, 그 이상으로 설레고 황홀했던 비행이었습니다. 약 1시간 20분의 비행 동안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서해대교, 삼척, 정동진을 거쳐 다시 서울공항으로 비행을 다녀왔습니다. 거의 30분 만에 서울에서 강원도를 찍었는데 느낌이 묘했습니다. 지금까지 32개국 정도를 여행하며 경비행기, 중형, 대형 민항기, 프롭기, 헬기를 다 타봤는데 전투기의 속도감은 감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기체가 365도 회전하고 급선회 기동을 하며 중력가속도를 몸으로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전투기 캐노피로 보이는 뷰 또한 비현실적일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안전한 비행을 이끌어 주신 공군 관계자분들에 감사하며,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된 조종사의 길을 묵묵히 걸으시는 분들에게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손효영 : 최대출력으로 이륙 후 멀어져가는 지상을 보는 그 기분은 너무나도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편대를 이룰 때는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전방석에 탑승한 조종사분이 워낙 비행을 잘하셔서 안심했습니다. 롤 기동이 기억에 남는데요. 순식간에 하늘과 땅이 상하로 바뀌더라고요. 놀이기구 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착륙할 때 랜딩 기어가 지면에 닿는 느낌도 들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행 실력을 가지고 계신 전방석 천익호 대위님에게도 월간공군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AF **끝으로 공군 장병과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강성태 : 학생들에게 공군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며칠간 여기저기 너무 떠들어댄 것 같아요. 또, 길거리에서 공군 장병을 마주칠 때나 TV에서 전투기가 나올 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 T-50이 날아가는 모습이 아른거릴 정도예요. 그만큼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하늘을 지켜주시는 공군 가족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을 수 있고, 저의 가족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해구 : 이번에 국민조종사로 선발되며, 그동안 몰랐던 공군과 조종사분들의 노고를 알게 됐습니다. 특히, 극한의 상황에서 조국 영공을 수호한다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조종사분들께 경외감이 듭니다. 조종사분들이 훈련에 임하고,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도록 전투기와 훈련기, 무기체계와 전술전략을 유지하고 정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수호해오고 있는 공군 장병 여러분들에게도 아낌없는 박수와 성원을 드립니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국민조종사로 공군과 공군장병 여러분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진심 어린 지지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보준 : 국민들이 항상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데에는 영공수호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주시는 대한민국 국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의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날까지 방역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습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냅시다!

손효영 : 영공방위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공군은 조종사와 전투기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군에서 군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한 번의 비행에 위해 수많은 지원 인력이 투입되고, 공군의 다양한 작전, 훈련, 교육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공군을 응원하고, 많은 분들에게 공군을 알릴 수 있는 공군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공군을 항상 고마워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끝으로, 이런 좋은 이벤트를 만들어주신 공군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F**



구름보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지키는 사람들

하늘이 높고, 말이 살피는 가을이 왔다. 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며 굽은 등을 기지개 켜고, 누군가는 책장에서 못다 읽은 책 한 권을 꺼내며 완독하리라고 다짐한다. 또 누군가는 등산화를 짝 조여 매고 단풍을 벗 삼아 등산길에 오른다. 가을이란 계절엔 여유로움이 있나보다. 하지만, 가을에 누구보다 분주한 부대가 있다. 바로 공군 제8979부대이다. 이 부대는 대한민국 국군 부대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다. 고도뿐만이 아니라 위도도 높아 10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눈이 오고, 11월부터 4월까지의 영하의 온도가 계속된다. 연중 6개월이 겨울이다 보니, 가을은 동계 생존이라는 장기전을 준비하기에 분주한 계절이다. 이번 호에서는 8979부대를 찾아 이틀간 함께 생활하며 부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을 지키는 8979부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8979부대에서 바라본 전경



하늘과 맞닿아 있는 8979부대

누구와 싸워도 이기는 8979부대

10월 6일(수) 새벽 5시, 공군본부에서 출장 채비를 마친 뒤 8979부대로 출발했다. 4시간이 걸려, 부대 작전 도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했다. 이제부터는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 굽이굽이 비포장도로를 하염없이 올라가니 귀도 멍멍해지고, 콧등도 살살 간지러웠다. 작은 승용차가 올라가기엔 너무나도 버거운 경사지만, 살살 달래가며 올라갔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니 부대 정문이 나왔다. 부대원들은 매일 다니는 출근길이 외지인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다. 후에 이야기를 들



구름을 뚫고 출근하는 8979부대원들

어보니, 해발 100m 읍내에서 해발 1,436m인 부대까지 올라온 것이었다.

부대에 도착해 출입절차를 밟으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안개가 잔뜩 끼어 시정이 5m가 채 되지 않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산 밑에선 느낄 수 없던 초겨울의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미리 찾아본 기상예보와는 다른 날씨에 놀라 옆에서 안내를 해주던 장교에게 물었더니, 기상청에서 볼 수 있는 지역예보는 거주지역 중심으로 이곳 날씨와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시정이 불안정한 것은 안개 때문이 아니라, 부대가 구름 속에 있어서라고 말했다. 부대 위치가 구름이 오르고 내려가는 경계선에 있어 변화무쌍한 날씨가 연중 계속되는데, 특히 10월과 11월에는 맑은 날이 열흘 남짓 정도이며, 대부분의 나날들을 이렇게 구름 속에서 보낸다. 10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아침 최저 온도는 영상 5도였다. 한여름에도 선선한 날씨라서 에어컨이 생활관마다 있으나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아직 부대에 들어서기도 전에, 강자들만이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부대라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부대는 10월 초부터 월동 준비를 한다. (아쉽게도 부대를 찾은 이날 날씨가 좋지 않아, 월동 준비하는 모습은 카메라에 담지 못했다.) 영하권에 접어들기 전에 반드시 야외 계단 손잡이에 촘촘히 새끼줄을 감아야 한다. 손잡이에 손이 달라붙어 버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 차량 운행과 보일러 가동에 쓰일 유류도 2만 리터 탱크 2개에 가득 채워둔다. 이곳에서의 월동은 장기전이고, 고독한 싸움이다. 폭설로 작전도로가 봉쇄될 것도 고려해서 항상 비상식량과 비상 유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차량 엔진 점검과 타이어체인 준비도 빠질 수 없다. 아무리 추워도 부대 작전은 멈출 수 없다. 그렇기에 어떤 악기상에도 안정적으로 작전운영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부대운영의 첫걸음이다.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사람 사는 곳이 맞나 싶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부대는 작년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실전적인 전술기량을 선보이며, 복수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능력을 처음으로 선보이기도 했다. 부대에 들어와 한 바퀴를 돌아보며, 부대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았다. 부대는 책임지역에 대한 적 항공기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까지는 호크라는 방공무기를 운용했고, 2017년부터 천궁을 운용하고 있다. 4계절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겨울과 겨울이 아닌 날로 구분한다. 평소 잦은 강풍과 운무로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하늘 아래 첫 포대’라는 부대 슬로건이 부대원들 가슴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어 매사에 열정적이라고 한다.



천궁 2개 표적 동시사격



산악용 진중버스

부대원들의 든든한 발! 진중버스와 제설차량

아무래도 출퇴근길이 가장 큰 문제다. 관사에서 부대 작전지역까지는 23km. 차가 없으면 올 수가 없다. 또 일반 승용차가 오고가기엔 너무나도 힘들다.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 차량 하부에도 상당히 무리가 가고, 연비도 좋지 않다. 그렇기에 8979부대에는 일반 부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차량이 있다. 부대원들의 발 역할을 해주는 산악용 진중버스다.



산악용 진중버스 내부



제설차량 스노우 플로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악용 진중버스는 8.5톤 트럭에 25인승 버스 좌석을 장착했다. 산악 지형에 걸맞게 4륜 구동형이고, 최대 출력은 320마력에 달해 급경사와 비포장 산악도로도 무리없이 이동할 수 있다.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ABS),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어 안정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산악용 진중버스가 있다고 하지만,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운행이 어렵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이면 8979부대의 제설차량 스노우 플로어가 등장한다. 2.5t 군용트럭에 스노우 플로어와 염화칼슘 살포기를 장착했다. 2시간 정도 운행하면 작전도로에 모든 눈을 치워버릴 수 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 무기 천궁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호크를 도입해 운용했다. 천궁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최초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완료했으며, LIG넥스원이 생산해 2015년부터 군에서 운용하고 있다, 천궁은 교전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됐다. 1개의 발사대는 8기의 유도탄을 장착할 수 있다. 수직발사대에서 압축공기로 유도탄을 30m 이상 수직으로 쏘아 올린 후에는 공중에서 추진기관을 점화해 원하는 목표물까지 비행하는 콜드 론칭 방식으로 운용된다. 유효 사거리는 40km, 요격 고도는 15km, 최대 속도는 마하 5이다. 360도 전 방향으로 운용 가능하며, 하나의 레이더에서 탐지·식별·추적·교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위상배열 방식도 적용됐다. 유도탄은 파편을 표적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표적 지향성 탄두이며, 모든 방향에 균일하게 분산되는 지대공 유도탄두보다 파괴력이 월등하고, 효과적이다.



8979부대에서 운용 중인 천궁 발사대



8979부대장 우동민 소령

8979부대장 우동민 소령

부대장 우동민 소령입니다. 작년 12월, 부대에 처음 왔습니다. 부대 명성에 대해선 익히 들었기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죠. 주임원사와 첫인사를 주고 받는데, 스키고글과 아이젠을 선물하더라구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사무실 한 칸에 치워두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옆 건물로 이동하기 위해 사무실 밖을 나섰는데, 20m도 가지 못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임원사가 선물해주고 고글과 아이젠을 착용하고 다시 길을 나섰죠. 당시엔 몰랐는데, 그때 기온이 영하 38도였고, 체감온도는 영하 48도였답니다. 이제는 항상 길을 나서기 전에 날씨부터 확인하고, 사무실에는 보온용품들 꼭 구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생활하면서 느껴보니, 우리 부대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바람으로는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한번쯤 근무해보고 싶은 부대로 이미지를 변화시켜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부대원 모두가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충실히 보장해주려고 합니다. 또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려고 합니다.

부대 자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고지부대 특성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지만, 묵묵히 각자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우리 부대원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혹한기와

악기상에도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과 완벽한 작전지원을 통해 방공작전과 기지경계작전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로 작년 방공유도탄사령부 주관 방공유도탄사격대회에서 천궁 2개 표적 최초 동시사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최우수부대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군지 인터뷰를 빌려 부대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가장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우리 부대원들 모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이제 곧 긴 겨울이 찾아옵니다. 혹한기 평균 체감온도가 영하 40도 이하인 우리 부대는 겨울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큰 임무입니다. 모두 조금씩의 걱정과 염려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부대의 강점인 전장병의 화합과 소통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부대원들 모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 아래 첫 포대! 8979부대 파이팅!’



천궁 작전 절차를 반복숙달 중인 장병들



부대 경치를 자랑하고 있는 김창민 상사

2번째 8979부대 생활을 즐기고 있는 김창민 상사

제8979부대 발칸운용담당 김창민 상사입니다. 발칸과 신궁에 대한 교육 훈련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8979부대는 2회차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하사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고, 작년에 다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가장 힘든 부대에 다시 찾은 이유가 무엇인냐고. 8979부대는 공군에서 손꼽히는 최전방부대입니다. 그 자체로 갖는 많은 상징성들이 있어요. 가장 멋진 부대에서 근무하고 싶어 다시 찾은 것이죠. 또, 하사 시절에 겪은 좋은 추억과 경험들이 생각나 다시 찾았답니다.

8979부대의 가장 큰 매력은 경치예요. 아마 누구에게 묻더라도 같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부대 아래로 운해(雲海)가 펼쳐지는데요. 장관입니다. 저희 부대의 임무가 구름보다도 높은 곳에서 우리 하늘을 지키는 일인데, 공군의 슬로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이랑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계절별로 바뀌는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사색에 잠길 때면, 신선이 된 듯한 기분도 든답니다. 아쉽게도 겨울을 제외한 계절이 빨리 지나가지만요.

부대 생활하며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그 중 손에 꼽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정말 눈이 많이 왔을 때 일인데요. 부대 작전지역까지 차량으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근길 중간지점인 1050고지까지 차로 올라온 뒤, 모두 내려 제설도구를 챙겨 부대 정상을 향해

눈을 치우며 올라갔죠. 아침 8시에 시작했던 작업이 11시 30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이제 제설도구를 내려 놓고 일해볼까?' 했는데 점심시간인거죠. 점심을 먹고 난 뒤에도 필수 작전 인원을 제외하곤, 모두 제설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은 모두 하사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와 달리 연령층도 많이 젊어졌어요. 열정있는 간부들이 자원해서 많이들 오고 있죠.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는 고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좋아서 모두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대에 자원해서 진출오는 것을 희망하는 미혼 간부가 있다면, 이것만은 꼭 고민해보십시오. 연인을 만들어 오지 않는 이상, 이곳에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배들은 8979부대를 '총각들의 무덤'이라고도 불렀답니다. 하하하.



악기상에도 기지 순찰을 돌고 있는 군사경찰 장병들

8979부대원들의 엄마, 안은하 조리사

2013년 1월부터 민간조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안은하입니다. 어찌다 보니, 이 부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면 항상 아침 식사 정리를 하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거리까지 준비한 뒤에 퇴근합니다. 출퇴근은 부대사람들과 같이 진중버스로 해요. 이 부대에서 일하기 전에는 식당을 운영했었어요. 건강관리를 위해 식당을 접고 쉬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동네 이장님께서 이 부대 조리사 자리가 비어있다고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군인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옛날 무서웠을 때의 군인들만 생각하곤 고사했죠. 요즘 군대 많이 바뀌었다는 이장님의 거듭된 설득에 못 이겨 딱 한 달만 해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시작한 게 어느덧 9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제 생각과는 달리 군인들, 매너가 너무 좋아요! 굉장히 교양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손자뻘되는 급양병들과 일하는 게 재밌네요. 식당에서는 저를 제외하곤 모두 급양병들이에요. 요리를 못하는 친구들이 들어올 때면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죠. 지금까지 50여 명의 급양병과 함께 일해봤어요. 야단칠 때는 무섭게 야단치기도 했고, 타이르면서 일하기도 했죠. 아침저녁으로 매일 130인분, 점심에는 200인분 가량을 준비한답니다. 가장 자신있는 메뉴는 찌개예요. 각종 찌개는 정말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



안은하 조리사와 급양병들

다. 처음엔 이곳까지 올라왔다 내려가는 것이 몸에 상당히 부담을 주었어요. 하루종일 귀가 멍하기도 하고, 피곤함을 많이 느꼈죠. 그런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런지 크게 힘들지 않아요. 올해 제가 66살인데, 개인적으로는 70살까지는 채우고 싶다는 생각이예요. 건강이 따라주는 대로 이곳에서 군인들에게 매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고 싶네요. 현재는 급양병들이 5명밖에 안 됩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삼시세끼를 준비하는 녀석들을 볼 때면 가끔은 꼭 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다행히 10월부터는 급양병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이틀씩 부대원들이 도시락을 먹고 급양병들이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우리 애들 쉬는 날에 맛있는 삼겹살 한 번 사먹고 싶습니다.



8979부대 으뜸병사 신우진 상병

부대 으뜸병사, 신우진 상병

부대 으뜸병사 신우진 상병입니다. 부대에 전입했을 때 첫인상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저를 사로잡았거든요. 읍내에서부터 계속해서 오르막길인데, 이 오르막길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고, 정말 계속 올라가는데, 1050고지라고 부르는 중간지점에서 ‘아 여기가 우리 부대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400m를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처음 부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정말 놀랐습니다. 제 위로는 새들이

날아다니지 않고, 자꾸 부대 아래에서 새들이 날고 있었
거든요. 그리고 구름이 멋드러지게 퍼져있는 모습에 압
도당했습니다. 또 밤에는 별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
리나라에서 이렇게 깔끔한 별들을 볼 수 있는 곳은 우리
부대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부대에 왔을 때는 부모님께서 ‘그래도 가까운 곳에
있으니 자주 볼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하셨지만, 부대의
고도와 자세한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 꺼내신
말씀은 ‘그곳에서 살 수 있니?’ 였습니다. 부모님의 걱정
대로, 이곳에서의 생활은 곧 생존을 의미합니다. 겨울에
출근길 5분을 걷다보면, 15초 뒤 눈썹부터 열기 시작해
도착할 때면 얼굴에 서리가 끼곤 합니다. 너무나 추운 날
씨에 물탱크에 물이 말라버려 물을 아껴써야 하죠. 가끔
눈이 많이 올 때면 부대가 고립될 수도 있어 11일치의
예비 식량도 항상 준비하고 지낸답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은 적응이 됐습니다.
지내다 보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간부와 병, 그리고 병
사 상호 간에 사이가 너무나 좋습니다. 막연히 친구관계
처럼 좋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끈끈한
전우애, 동료애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추운 만큼 여름이 짧아서 좋기도 합니다. 여름의
불청객 모기는 본 적이 없고, 대부분의 곤충들도 여름에
잠깐 보이고 모습을 감춥니다. 불볕더위에 피서를 떠
난다는 뉴스를 볼 때면, 이곳에서의 선선한 여름이 즐겁
기도 합니다.

이곳은 격오지로 분류되어 있어, 소소한 혜택이 붙는
데요. 8주 근무할 때마다 위로휴가를 1일씩, 그리고 매
달 격오지 근무 수당으로 약 3만원 가량을 더 받고 있
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하하하

짧지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취재였다. 병사부터 지휘관까지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대를 둘러보니
이곳에서 몇 달은 생활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부대의 첫인상과는 달리 이곳에서 부대원들과 이야기하고 작전을 수
행하는 모습을 보니 부대원들이 대가족 같다고 느껴졌다. 이제 곧 긴 겨울이 오지만, 8979부대는 걱정이 없다. 모
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장군의 매서운 기세에도 꺾이지 이겨낼테니까. AF





공군본부 북카페 休를 소개합니다!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 가을이다. 선선한 가을바람부는 저녁, 작은 등 하나 켜고 좋아하는 소설책 한 권 꺼내 쉬엄쉬엄 읽기 참 좋은 날들이다. 독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싶어 찾아보던 중, 계룡대 4층에 있는 공군본부 도서관이 <북카페 휴(休)>로 새롭게 개관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사로 준비했다. 이곳까지 직접 찾아오실 일은 없겠지만, <북카페 휴>를 시작으로 전 부대 도서관이 하나씩 리모델링될 계획이니, 하나의 좋은 예로 보면 되겠다. 그럼 지금부터 새롭게 바뀐 <북카페 휴>를 소개한다.

#1. 도서관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북카페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공간의 변화이다. 특히 공간의 콘셉트가 바뀌었다. 책을 빌려 읽고 반납하는 단순한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한 바퀴를 쭉 둘러보면, 유명 서점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물론, 이렇게 멋지게 변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우선, 공군본부 도서관에 주어진 공간은 30평. 그런데 지금의 북카페는 30평보다 넓어보인다. 담당자가 책을 모조리 버리지도 않았는데 과거와는 달리,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먼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용가치를 상실한 2,500여 권의 도서를 없앴다. 남아있는 약 2만여 권의 도서는 대형 서가에 빼곡히 넣어두기보다, 벽장형 서가를 이용해 비치했다. 이렇게해서 만든 공간에서는 주기적으로 북 콘서트, 독서 토론회, 저자 초청 강연회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과거 공군본부 도서관 사진



북카페 안 문화행사 공간

#2.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독서

눈에 띄게 바뀐 공간이 하나 더 있다. 태블릿 PC가 놓여져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가에 없는 장서나, 신간 도서를 하루 빨리 읽고 싶은 장병들과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익숙한 신세대 장병들을 위해 준비한 야심찬 코너이다. 공군본부 전자도서관을 통해 3천여 권의 전자책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충남교육청 남부평생교육원과 공군본부가 전자도서관에 대한 이용 협약을 맺어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와 ‘월라’도 이용할 수 있다. 두 개의 독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오디오북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매달 새로운 테마를 선정해 추천 도서를 공지하거나, 베스트셀러 등 유명책 요약본도 선보일 예정이다.



#3. 몸도 마음도 힐링되는 휴식공간

큰 변화점을 이야기했다면, 마지막은 디테일이다. 북카페의 분위기가 그 전과 비교해 180도 바뀌었다.

과거엔 하얀 백색등에 빼곡히 들어서 있는 서가에 압도당해 책만 빨리 고르고 나오고 싶었다면, 지금은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머물며 쉬었다 가고 싶은 공간이 되었다. 전면 서가에 은은하게 비춰지는 간접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고, 가을바람 같은 책냄새는 독서욕구를 자극한다.

책 한 권 들고 앉아 완독해도 몸에 빠근함 하나 느껴지지 않는 편안한 소파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모두 책을 사랑하는 장병들에게 초점을 맞춰 준비했다. **AF**



공군을 즐기는 스마트한 방법!

공군 SNS 주요콘텐츠 안내

에어본

AIRBORNE



오직 공군에서만 볼 수 있는 항공촬영 콘텐츠

공대리



공군 대위 LEE가 쉽게 풀어주는 공군 이야기

공피셜



공군이 알려주는 공군 이야기

100인의 공군



공군의 다양한 보직을 소개하는 미니다큐멘터리

입대요강



공군 전문특기병 지원 가이드



유튜브
대한민국공군
youtube.com/rokafplay



페이스북
대한민국공군
facebook.com/rokairforce



인스타그램
대한민국공군
instagram.com/rokaf_offical



티스토리 블로그
공군 공감
afplay.kr

내게 '첫 공군'은 블랙 이글스였다

글쓴이 채널A 강은아 기자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는 강은아 기자입니다.
10년 기자 생활의 8할을 외교안보 분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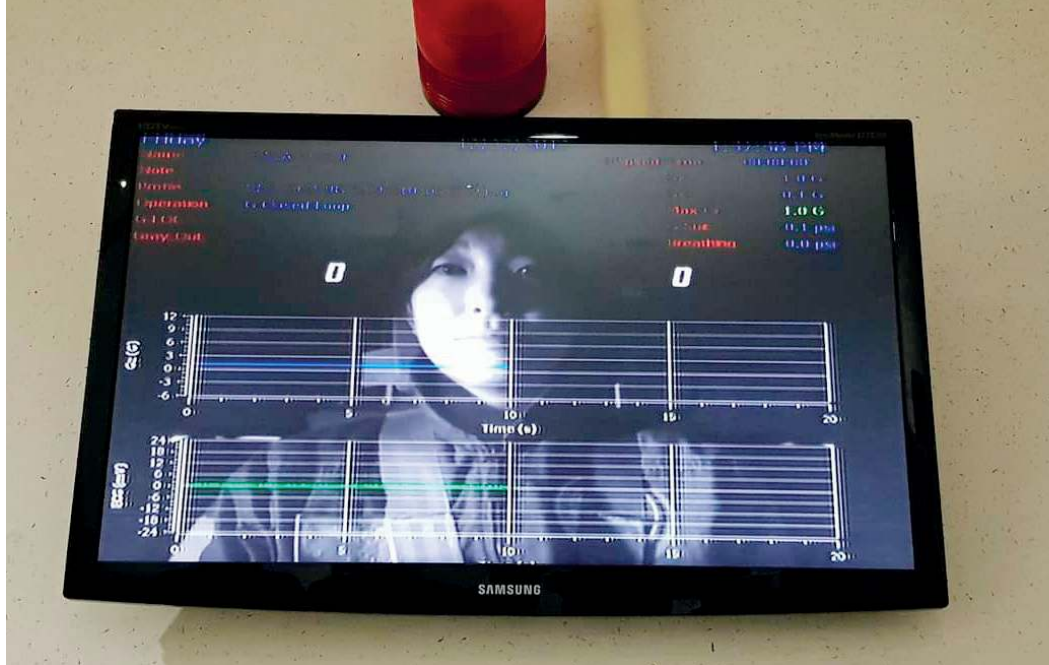
공군을 처음 가슴에 새긴 건 2012년. '블랙 이글스'가 영국 에어쇼에 참가한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였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선보이는 블랙 이글스의 비행은 공군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던 한 여대생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영국 와딩턴 에어쇼는 세계 18개국 100여대의 항공기가 참가하고 14만여 명이 관람한 세계적인 에어쇼로, 우리 공군의 첫 국제무대이기도 했다. 그곳에서 블랙 이글스는 국내에서 개발된 'T-50B'로 멋진 비행을 선보여 수상의 영광까지 얻었다. 현장을 찾은 당시 공군 참모총장 성일환 대장의 울음 섞인 인터뷰가 기억난다.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에, 외국에서, 그것도 해가 지지 않는 영국 땅에서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비행도 보통비행이 아니고 우리 에어쇼 팀이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보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멋지게 비행하는 그 모습이 총장으로서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칩니다.”

그리고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동생이 공군에 입대했다. 나도 '공군 가족'이 됐다는 게 기뻐다. 동생 면회

를 하려고 양손 가득 치킨과 김밥을 싸들고 수원 공군기지를 찾을 때마다 전투기를 볼 수 있을지 기대했지만, 아쉽게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아마 주말이라 비행이 없었던 것 같다.

그 후 난 그토록 되고 싶던 기자가 되었고, 국방부를 출입하게 됐다. 그리고 2017년 12월, 다시금 공군과 인연이 닿았다. 국방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FA-50' 비행 체험이 추진된 것이다! 블랙 이글스의 T-50B와 같은 50 항공기를 탈 수 있다는 사실에 곧장 신청했고, 항공생리 훈련을 받기 위해 항공우주의료원을 찾았다. 전투기 가속도 내성훈련(G-TEST)부터 감압훈련까지 무리 없이 견뎌냈다. L-1 호흡법을 터득해 무려 6.6G의 중력가속도까지도 기절하지 않고 버텼을 땐 정말 기분이 좋았다. 사실 내가 겪은 건 말 그대로 '체험'이었다. 전투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9G에서 15초 이상을 견뎌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6G가 넘어가면서 시야가 양끝에서부터 까맣게 사라져가던 순간의 두려움이 아직도 선명한데, 9G라니. 존경심이 절로 생겼다.



2017년 비행환경 적응훈련 당시 강은아 기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골든이글 탑승만을 기다렸지만 아쉽게도 탑승하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임신’^^ 하필 그토록 고대하던 전투기 탑승을 앞두고 둘째가 찾아왔다. 너무 속상했다. 남편도 원망스러웠다(?) (태어난 둘째의 사랑스러움으로 지금은 그 속상함과 원망을 극복한 상태다.)

그렇게 출산과 육아로 잠시 떠나 있다가 올해 초 다시 국방부로 돌아왔다. 그리고 곧장 반드시 하고 싶던 아이템, 블랙 이글스 인터뷰를 추진했다. 비록 T-50B나 FA-50을 타진 못해도 이번만큼은 블랙 이글스의 훈련 모습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담아 보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내게는 ‘첫 공군’이었고, 가슴 벅참을 선물해줬던 블랙 이글스와의 만남이었다. 내가 취재에 나섰던 지난 5월은 블랙 이글스 훈련으로 인한 소음과 스모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던 시기였다. 내가 취재를 위해 부대를 찾았을 때도 1인 시위를 하는 주민분이 ‘블랙 이글스 해체’라는 팻말을 들고 입구에서 계셨다. 해체라니, 나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당신들의 비행이 국민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고, 가슴 울리는 메아리가 된다는 걸 말하고 싶었다. 다양한 촬영 장비를 챙겨 우리 회사에서 특수 촬영장비에 가장 능통한 영상취재기자 2명과 함께 훈련장을 찾았다. 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비행훈련을 모두 눈으로, 마음으로 담고 영상에도 담았다. 이후 영상 편집도, 음악 작업도 최선을 다했다. 개인적으

로 기억에 남을 보도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어느덧 10월, 올해는 공군에게 참 힘든 한 해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으로 참모총장이 사임했고, 공군 법무실과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수사 논란은 여전하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올해 취재하며 가장 감동 받았던 건 모두 ‘공군’의 활약상이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무사히 구출한 ‘미라클 작전’부터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신 ‘특별 수송’, 집단감염으로 긴급 귀국하게 된 청해부대원 전원 수송 작전까지. 공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높이 날았고, 가장 멀리 날았으며, 가장 오래 날았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힘내세요! 공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는 자랑스러운 정예 국군입니다. 분명 잘못된 건 고쳐야 하고, 부족한 건 메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우리의 자부심인 게 흐려져선 안 될 겁니다. 전제 전투기 탑승을 막은(?) 아들이 언젠가 입대할 그 날 (아직 3살인 건 함정)이 되었을 때, 공군이 되겠다고 하면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지금 현직에 계시는 모든 공군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국가 수호에 힘써주시기에 제가, 그리고 저의 가족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필승!” AF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21화 박재삼(朴在森) 시인 편



「코메트」, 제21호, 1956년

천지무획(天地無劃)

나를 하염없이 눈물나게 하는, 풀잎 축 트는 것, 햇병아리 뜰에 노는 것, 아지랑이 하늘 오르는 그런 것들은 호리(毫釐)*만치도 저승을 생각하라. 그리고 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주 이들을 눈물나게 사랑하는 나를 문득 저승에 보내버리기야 하라.

* 호리(毫釐): 매우 적은 분량을 비유

그렇다면 이 연연(戀戀)한 상관(相關)은 어느 훗날, 가사(假使) 일러 도도(滔滔)한 강물의, 눈물겨운 햇볕에 반짝이는 사실이 되어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얼마동안은 내 뼈 녹은 목숨 한조각이 반짝인다 하여도 좋다. 혹은 나와 아들이 다 함께 반짝인다 하여도 좋다.

그리하여 머언 먼 훗날엔 그러한 번쩍이는 사실을 훨씬 넘어선 높은 하늘의, 땅기운 아득한 그런 데서 나와 아들의 기막힌 분신(分身)이, 또는 변모(變貌)가 용하게 함께 되어 이루어진, 구름으로 흐른다 하여도 좋을 일이 아닌가

박재삼 시인은 1933년 4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외가가 있던 경상남도 삼천포에서 자랐다. 시인의 아버지는 지게 노동으로, 어머니는 생선 행상으로 어렵게 살림을 꾸리는 통에 시인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신문배달을 했다. 그러던 중 삼천포중학교 교장의 도움으로 1947년 삼천포중학 병설 야간중학교에 입학하여 낮에는 잔심부름꾼으로 일하고 밤에는 수업을 들었다. 1948년 교내신문 '삼중(三中)' 창간호에 동요 '강아지'와 시조 '해인사'를 발표하며 시인으로서의 자질을 보였다. 당시 삼천포여자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시조 시인 김상옥에게 시를 배웠다고 한다. 1953년 삼천포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김상옥 시인의 소개로 현대문학사에 취직했다. 고려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역시나 학비 때문에 중퇴했다. 현대문학사, 삼성출판사를 전전하며 1953년 『문예』에 시조 「강물에서」를 발표하고, 이어 1955년 『현대문학』에 서정주 시인 추천으로 시 「정적」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또 유치환 시인의 추천으로 시조 「섭리」를 발표하며 시조 시인으로도 등단했다. 1962년에 첫 시집 『춘향이 마음』이 신구문화사에서 간행되면서 이후 『햇빛 속에서』, 『천년의 바람』, 『어린것들 옆에서』, 『뜨거운 달』, 『비 듣는 가을나무』 등 다수의 시집과 시선집·산문집을 발간했다.



박재삼 시인 초상



시집 『춘향이 마음』

다양한 작품을 배출한 시인이지만, 아쉽게도 공군지에는 시 「천지무획」뿐이다. 단 한 편뿐이지만 곱씹어 볼수록 멋드러진 시라서 일당백이다. 자세히 한 줄 한 줄 읽어가다 보면, 갓 태어난 어린 풀잎, 햇병아리 등 풋내기 생명의 맑고 눈부신 기쁨과 감동이 시 구절마다 투명한 이슬처럼 맺혀 반짝이는 걸 느낄 수 있다.

‘풀잎 촉트는 것, 햇병아리 뜰에 노는 것, 아지랑이 하늘 오르는 것’들은 눈썹만큼도 ‘저승을 생각’할 리 없다고 이야기 한다. 시인이 오직 삶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자연의 이 찬란한 반짝임에는 심지어 ‘내 뼈 녹은 목숨’이나 ‘나와 아들이 다 함께’ 먼 훗날 죽어서 한데 섞여 있게 될지라도 ‘그러한 번쩍이는 사실을 훨씬 넘어선 높은 하늘의 땅기운 아득한 그런 데서 구름으로 흐른다’하여도 좋다고 이야기한다. 천지가 구분 없이 구름되어 흐를 것이니 이 얼마나 좋으며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생명은 죽으면 물이 되어 흐르다가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이 세상으로 온다고 이야기 한 붓다의 불교사상이 엿보인다. 생과 사가 한데 어울려 돌아가는 것을 갓 태어난 여리디 여린 새싹의 빛남으로 이야기 하는 박재삼 시인의 혜안이 놀랍기만 하다.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나고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저것봐 저것 봐,
 네보담 더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 1959년 2월 『사상계』 -



박재삼 시인의 시비

박재삼 시인의 대표시다. 1959년 2월 『사상계』에 발표됐고, 1962년 시집 『춘향이 마음』에도 수록됐다. 대표시인 만큼 독자들이 애송하는 시이다. 시인의 29세 초기 작품으로 그의 시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시를 발표했을 당시는 6·25전쟁이 끝나고 얼마되지 않아서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가난 때문에 대학을 중퇴해야 하는 개인적인 고통도 있었다. 이것에 대한 마음이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있는 마음일 때’에 잘 표현되어 있다.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에 가을 햇볕처럼 쓸쓸한 햇살을 동무 삼아 걷다보면, 누군가 또 세상을 떠나 곡소리 들리는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에 눈물 나서, 그런 슬픈 마음으로 강가에 다다르니 저녁 노을도 울음을 삼키고 그 타들어가는 울음에 노을이 붉게 붉게 저물고 있다고 노래한다. 그래서 2연은 감탄하는 지시체 구사어로 시작된다. ‘저것봐 저것 봐’ 하며, 산골에서 시작된 첫사랑의 기쁨과 울음까지 끌고 내려온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마침내 모두를 끌어안아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하며 조용히 탄성을 지르는 것이다. 한 해의 결과물을 안고 저무는 가을 강은 곧 우리네 일생임을 이야기하고, 붉은 저녁노을로 승화되며 마무리하는 시다.

천년의 바람

천년 전에 하던 장난을
바람은 아직도 하고 있다
소나무 가지에 설 새 없이 와서는
간지러움을 주고 있는 걸 보아라
아, 보아라 보아라
아직도 천년 전의 되풀이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 일이다
사람아 사람아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
탐을 내는 사람아

- 1975년 『천년의 바람』 -



시집 『천년의 바람』

역시 시인의 대표시다. 자연에서 터득한 지혜를 1연의 ‘바람’과 2연의 ‘사람’으로 대치해 비유하고 있다. ‘바람’에겐 소유욕이 없어서 천 년간이나 소나무 가지나 간질여 주며 변함없이 비워낸 마음으로 되풀이하는 데, 사람은 어떠한지 묻고 있다. ‘이상한 것에까지 눈을 돌리고/탐을 내는 사람’이라서 끝없는 욕망과 갈등, 그 끝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인은 다독인다. 바람을 봐라, 저렇게 빈 손으로 기법게 왔다가는 바람을 보고 배워라, ‘그러므로 지치지 말 일이다’며 깊은 울림을 던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연을 통해 배우지 않을 수 없음을 느낄 수 있는 교훈이 많은 시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절실히 깨닫는다. 비행기가 끊기자 맑아진 하늘, 외출이 줄어들자 살아나는 산야의 푸른 풀들, 행복을 노래하는 새들... 인간이 저지른 제일 큰 죄는 이 지구의 자연을 오염시킨 것일 것이다. 박재삼 시인의 시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각성이 새로워지면 좋겠다.





박재삼 문학관 내부



디지털 박재삼 문학관

박재삼 시인은 김소월 시인과 서정주 시인의 시 세계를 계승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1950년대 이후 한국 전통 서정시의 세계를 생동감 있는 구어체로 구사해, 모국어의 질감을 눈부시게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초기 시는 1950년대 주류를 이루던 모더니즘 시의 관념적이고 이국적인 정취와는 달리 한국어에 대한 친화력과 재래적인 정서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의 시에 대해 전통적인 서정시의 한 절정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반면, 후반기에는 현실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시편들을 계속해서 발표했다. 맑은 감수성을 보여주는 시인으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특히 그의 애잔한 어조의 구어체 표현과 율격은 오래도록 독자들의 가슴, 뇌리에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다.

현재 경남 사천시에선 삼천포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노산공원길에 박재삼 문학관을 짓고, 그의 시세계를 사랑하고 시정신을 이어받고자 하는 후세시인들을 위해 2012년부터 <박재삼문학상>을 만들어 매년 예심과 본심을 거쳐 시상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삼천포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 최근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한 소식인데, 경남 사천시에서 박재삼(1933~1997) 시인의 작품과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박재삼 문학관’을 열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사천시 노산공원길 삼천포에 있는 박재삼 문학관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박재삼 시인의 문학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인 소개를 비롯해 시인의 다양한 작품 중에 엄선된 대표작품 20편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었다. 시인의 일생과 시에 대한 사랑 및 시집 전반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 소개한 시 3편을 읽어보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디지털 박재삼 문학관을 찾아보자. 마음 울림 이상의 감동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AF**

* 김금용 시인: 1997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광화문 자음』, 『넘치는 그늘』, 『핏줄은 따스하다, 아프다』, 번역시집 『문학이 낳은 중국현대시』, 『나의 시세계』, 『오늘 그리고 내일 今天與明天』 외 문학상 다수 수상. 현재 『현대시학』 주간.



공군 신고전화 7979입니다.

군 전화는 (국번없이) 7979, 일반전화는 042-552-7979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7979는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신고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공군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신고와 의견을 바탕으로
바르고 강한 공군을 만들겠습니다.



제31화 항공촬영사 위인태 상사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비행 전 동승조종사와 촬영 계획을 의논하고 있는 위상사

공중근무자 생활훈련 중인 위상사(맨 왼쪽)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과에서 항공촬영사로 복무하고 있는 위인태 상사입니다. 저는 2006년 공군 항공 과학고등학교 35기로 졸업해서 1전비 무장대대 영상장치반에서 전자광학장비정비사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공보정훈으로 특기전환해서 3훈비, 서울공보팀, 17전비와 공군본부 문화홍보과에서 사진 촬영담당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에 좋은 기회를 얻어 항공촬영사로 임명되어 현재는 공보과에서 항공촬영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사란?

항공촬영사는 전투기, 수송기, 헬기 등에 탑승해 작전과 동시에 사진, 영상 촬영을 실시하여 생생한 공중 상황을 기록하고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공군에 딱 4자리만 있는 희귀한 보직이죠. 직접 항공기에 탑승하다 보니 모두 공중근무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선발 과정에 비행환경적응훈련이 포함되어 있고, 선발된 이후에는 공중근무자 생활훈련도 이수해야 합니다.

항공촬영사는 비행 계획이 수립되면 항공기의 위치나 동선을 미리 파악해서 최상의 사진과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임무 조종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죠. 보통 임무 전날 비행대대 브리핑에 참석합니다. 그 외에도 위성촬영 어플을 통해 촬영 고도와 지상 구조물의 크기, 항공기 이동 방향을 확인해 그에 맞는 촬영을 준비해요. 공중에 올라가면 어플을 통해 본 것과는 다소 다르지만, 후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에 꼭 검토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에게 촬영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많은 조언을 구해 촬영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항공촬영이 없을 때는 사진기획담당으로 공군본부 홍보, 역사기록용 사진을 촬영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사에 도전하게 된 계기

제가 17전비에 근무할 당시 선임부사관께서 항공촬영사를 적극 추천해주셔서 도전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제 자신에게 수없이 되묻기도 했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손에서 땀이 줄줄 나고, 놀이공원에 가도 놀이기구는 쳐다도 보지 않을 정도인데, 항공기에 탑승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게 가능할지 참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배 항공촬영사들의 작품을 보면 절로 동경심이 들어, 도전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인지 비행환경적응훈련을 무사히 수료했고,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항공기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위상사가 촬영한 블랙 이글스 에어쇼

가장 기억에 남는 컷

최근 블랙 이글스에 탑승해서 촬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에어쇼를 볼 때마다 멋있다고 느낀 블랙 이글스를 직접 찍어보니 다시 한번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항공기의 나사 숫자까지 셀 수 있을 만큼 근접해서 격렬한 기동을 펼치는데, 정말 오금 저렸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컷

항공촬영사가 되고 첫 촬영인 실무장 투하훈련 촬영이 가장 아쉽습니다. 첫 촬영인데, 이상하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여러 번 임무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촬영 당일 너무 긴장해 카메라 점검만 2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항공기에 올라가서부터 땀이 비 오듯 나고, 전방석 조종사가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호흡 조절도 못 하고, 손을 너무 떨었습니다. 실제 비행환경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내려와서 촬영본을 보니 발로 찍었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결과물이 있어 크게 아쉬웠습니다. 사실 촬영 결과물을 볼 때면 항상 후회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동해달라고 요청드렸다면 조금 더 멋진 결과물이 나왔을텐데’ 하는 생각도 하고, 급격한 기동을 할 때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서 무거워지는 카메라를 팔로 버티고 있으면 ‘내 팔이 돌아있으면 좋겠다. 나는 숨을 쉬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미짚에서 촬영한 영상처럼 보이고 싶어서 줌과 항공기 기동을 함께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생각처럼 쉽게 되지 않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찍어보고 싶은 장면

외국군의 SNS 채널을 보면 우리가 시도해 보지 못했던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최신 전투기와 훈련기, 최신 기종과 노후 기종이 함께 비행하는 사진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제트엔진 항공기와 프로펠러 항공기가 함께 나오려면 사진 촬영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경력을 많이 쌓아 언제 한번 우리 공군도 최신예 항공기와 훈련기, 무인기와 유인기가 함께 나오는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공촬영사의 매력 포인트

항공촬영사 자리의 존재 자체가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임무현장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공군 역사의 순간에 직접 참여하여 순간을 기록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간의 찰나를 찍는다고 합니다. 항공기에 앉아 제가 눈으로 본 장면 한순간 한순간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캠코더를 들고 전투기 후방석에 탑승한 위상사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제가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SNS 채널을 통해 올렸을 때, ‘좋아요’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따로 있더라고요. 임무에 투입되었던 장병들의 가족이 제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고 가족과 공군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가장 뿌듯합니다. 저도 가족들에게 “이거 내가 찍었는데...”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임무 영상이나 사진을 공군 가족분들이 보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제가 느끼는 감정에 비하면 훨씬 큼니다. 물론! 공군 SNS 채널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꼭 알아주십시오.

말 못 할 고충들

공군에 단 4명뿐이기에 적은 인원에서 오는 몇 가지 불편한 점들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촬영 임무가 생긴다면 4명에서 임무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며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임무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를 선택해주었고 저도 그 선택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항공촬영사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촬영 전날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아무래도 아직 스스로를 바라보았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돼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 임무 절차를 수없이 반복해서 머릿속에 그려보고, 가장 멋진 순간을 상상하다보면 다음날 아침해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저에게 “넌 너무 걱정이 많아. 그리고 너무 과하게 긴장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외에도 말 못 할 고충들이 없진 않지만, 공군인으로 역사를 기록한다는 자긍심 하나가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비행장구와 카메라를 들고 전투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위상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비단 항공촬영사 뿐만이 아니라, 공보정훈부서관은 공군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항공촬영사는 많은 전우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공군의 역사를 기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 다양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코 본인의 역량과 능력으로 임무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도움 속에 공군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는 특수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도전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체련단련에 힘쓰시길 당부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중무장하고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군의 임무 사진들을 보며 ‘자부심을 느낀다. 든든하다.’라고 공군을 격려해주십니다. 제가 일하는 데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이런 관심과 응원들이 공군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여지는 것들만이 공군의 역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촬영물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는 수많은 장병들과, 그들을 응원하는 국민분들 모두가 공군의 살아 숨쉬는 역사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공군인들을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찾고, 기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F



월간 「공군」

장병 참여코너 공모 안내



월간 「공군」 장병 참여코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공군인의 편지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

응모방법

인트라넷 E-mail 전송
cjhminam1210@af.mil
(대위 최지형)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 (편지) 명시할 것)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양식

- 바탕체
- 10pt
- 줄간격 180%
- 공백포함 1250자 이내
(수신인 성함, 주소, 연락처 기재)

2 책읽는 공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추천 / 소개 / 서평

응모방법

인트라넷 E-mail 전송
cjhminam1210@af.mil
(대위 최지형)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 (서평) 명시할 것)
(예 : [서평]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양식

- 바탕체
- 10pt
- 줄간격 180%
- 공백포함 1400자 이내

3 마음의 소리

[월간공군]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

응모방법

인터넷 월간 「공군」
E-BOOK 자료관에서 업로드
(www.afzine.co.kr)

(인터넷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공군'
검색 후 '독자 의견' 코너에 게시)

양식

- 250자 내외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공모기간 매월 **10일** 까지

입선편택 공군인의 편지, 책읽는 공군 지면 게시작 / 1등 - **포상금 5만 원** (개인 계좌 입금) 2등 - **기념품**
[공군인의 편지 당선 시 수신인 주소로 공군지와 기념품 특별 배송]
마음의 소리 게시작 / **기념품**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 - 개별발송)

우 리 부 대 는



통신을 제일로! 미래를 승리로!

제7항공통신전대

공군 유일의 정보통신 전문부대!
공군 제7항공통신전대를 소개한다.

부대 마크의 의미

- **붉은섬광** : 숫자 7을 의미하며,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
- **큰 별** : 북극성을 의미하며, 공군 정보통신의 핵심임무를 수행한다는 7전대의 자긍심을 상징
- **7개의 별** : 전대본부, 3개 대대, 3개 실을 의미하며, 북두칠성 형태로 인화단결함을 강조
- **지구(그물망)** : 사이버·전자전이 수행되는 전장이자 7전대의 임무수행 공간인 네트워크를 상징
- **노란 띠** : 7전대가 임무 목표로 삼고 있는 전파와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의미

부대 연혁

- 1955. 10. 제7항로보안단 창설
- 1969. 02. 평택기지로 이전
- 1991. 02. 걸프전 참전 및 통신장비 지원
- 1995. 10. 제7항공통신전대 창설
- 2007. 10. 위성통신중대 신설
- 2011. 06. 주파수관리통제실(현. 전파관리통제대) 신설
- 2015. 01. 통신장비정비중대 신설
- 2019. 11. 공군 정보통신 경연대회 종합성적 '최우수'



위성통신망 훈련



7전대 창설 기념사진

공군 유일의 정보통신 특화 부대

공군 제7항공통신전대는 1955년 대구기지에서 창설된 '제7항로보안단'을 모체로 한다. 1995년 10월, 제7항로보안단은 항로관제임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보통신시설의 건설·보수·복구 기능과 전술이동통신지원 기능을 특화하여 지금의 평택기지에서 제7항공통신전대로 개편·재창설되었다. 7전대는 대한민국 공군의 중추신경을 책임진다는 사명 아래 전·평시 종합 전술이동통신 지원, 첨단 무기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시설의 유지보수 및 긴급복구, GPS 전파교란 탐지 및 분석, 전파환경관리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정보통신의 주력부대이자, 공군에서 유일한 정보통신 특화 독립전대이다.



정보통신설비 보수공사



공대지사격장 사격채점장비 정기점검

정보통신장비 정비의 핵심

통신전자정비대대는 정보통신 야전정비의 핵심부대로서, 전국 각지에 산재해있는 공군부대의 정보통신장비 무중단 작전지원을 위해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가 되어있다. 대대는 통신케이블 및 철 탐 등 작전 수행에 있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설비인 통신기반 시설을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사격채점훈련체계(WISS), 무선 네트워크체계(LTE),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첨단 통신장비를 비롯해 레이더, 항법장비 등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요소인 항행안전시설까지 야전정비와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군에서 운용하는 모든 암호장비에 대한 창정비도 지원하고 있다.



TICN중대 조 단위 훈련

완벽한 항공작전을 지원하는 전술이동통신대대

전술이동통신대대는 장거리통신장비, 항법장비, 위성통신장비, 기동영상장비 등 다양한 종류의 전술이동통신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적의 공습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통신망이 두절되거나, 비상 활주로 등 통신설비가 부족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술이동통신장비를 전개하여 장거리 회선, 위성통신망, 항공기의 방위거리정보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또한 대구 기지와 백령도 2곳에 별도의 파견반을 운용하여 대구기지에 유/무선 장거리 통신망과 군 위성통신망을 지원하고, 백령도 공역에 대한 방위 및 거리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GPS 항재밍 기능점검장비 정기점검

안정적이며 최적화된 통신환경 구축

전파관리통제대는 공군 작전수행에 최적화된 전파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임무를 수행한다. 전파관리통제대는 공군의 GPS 전파 교란 분석 임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전파교란 발생 시 교란 원점을 추적하고 교란의 영향범위를 분석한다. 더불어,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의 전자정보·GPS항재밍기능을 측정 및 분석하고 피아식별장비에 대한 인증시험을 주관함으로써 공군 전자전 수행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공군에서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모든 장비체계에 대해, 각 장비가 배정된 주파수를 정확하게 발산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장비·체계 간 혼신·간섭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장병 벽화그리기 재능기부

신바람나는 병영문화로 작전수행능력 보장

7전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장비를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무의 성공적인 완수를 좌우하는 요소는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7전대는 장병들이 충분한 재충전을 통해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에는 장병들의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해 코인노래방을 유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병영도서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스터디·소모임 등을 위한 세미나실을 설치하여 개장을 앞두고 있다. 또한, 급식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푸드트럭을 유치하거나, 경칩, 벚꽃 개화일과 같은 소소한 기념일에 착안하여 작은 축제와 격려행사를 개최하는 등 장병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F**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 2021 ADEX」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21

Seoul ADEX 2021





블랙 이글스,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10월 22일(금), 서울 2021 ADEX 행사장에서 희귀 소아암으로 투병 중인 최윤수 군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날 최윤수 군은 '일일 블랙 이글스 요원'으로 임명되어 빨간 마후라를 수여받고,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입니다!"라고 직접 멘트를 하기도 했다.





237대대, 17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달성!

공군 제8전투비행단 제237전투비행대대 10월 25일(월), 17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 197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46년에 걸쳐 세운 기록으로, 공군 단일 비행대대 최장기간 무사고 비행기록이기도 하다.



「서울 2021 ADEX」 개막 기념행사 참석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은 10월 18일(월)부터 10월 23일(토)까지 「서울 2021 ADEX」 행사장에서 ‘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 ‘공군참모총장 회의’, ‘ADEX 환영 행사’, ‘공군 발전 세미나’, ‘국민조종사 및 명예조종사 임명식’ 등을 주관하고, 실내·외 전시장을 둘러보며 행사 지원 요원들을 격려했다.

10월 20일(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서울 2021 ADEX」 개막 기념행사에도 참석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로 우리 공군의 국산전투기인 FA-50에 탑승해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현충원, 용산 전쟁기념관 상공을 비행한 뒤 행사장에 착륙해 세계 각국의 대표단들에게 국산전투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2021년 공군본부 국정감사 수감



박인호 참모총장은 10월 14일(목) 오전 계룡대에서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등 4개 동시수감 부대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를 수감했다. 참모총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성추행 피해 故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고인과 유가족께 마음 깊은 사과와 애도를 표하며, 대한민국 공군은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동료의 인권과 일상을 지켜주는 바른 공군’, ‘대한민국 하늘과 우주를 지키는 강한 공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로우주센터 방문



박인호 참모총장은 10월 6일(수)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과 나로우주센터를 방문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개발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발사대와 보관동 등을 둘러보았다. 또한, 10월 21일(목)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위한 공군 지원사항을 점검하고 발사 준비 중인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공군본부 공병실

제9회 피해복구 전술평가대회

공군본부 공병실은 9월 27일(월)부터 10월 11일(월)까지 91전대에서 제9회 피해복구 전술평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활주로 피해복구를 비롯해 비상전력, 급수, 건설기계 정비, 소방 및 사고구조 등 6개 종목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전사령부

후반기 특수임무요원 헬기레펠 훈련

작전사령부는 10월 5일(화)부터 11월까지 예하부대 군사경찰대대 특수임무요원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6전대 주기장에서 '21년 하반기 헬기레펠 훈련을 실시했다.



제1전투비행단

병사의 날

제1전투비행단은 9월 30일(목) 병사의 날을 실시했다. 병사자율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에는 풋살, 농구, 단체출렁기와 선봉 퀴즈 골든벨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었다.



제3훈련비행단

공항 대테러 종합훈련

제3훈련비행단은 10월 13일(수), 공항 계류장에서 국정원, 한국공항공사, 경남경찰청, 지역 육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항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제18전투비행단

문화예술 전시회

제18전투비행단은 10월 12일(화)부터 22일(금)까지 일출관 로비에 미술 전시회(갤러리쇼 소장전)를 진행했다.



제1방공유도탄여단

후반기 전투태세훈련

제1방공유도탄여단은 10월 5일(화)부터 7일(목)까지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를 건설하기 위해 후반기 전투태세 훈련을 실시했다. [AF](#)

한 달, 한 권



내 삶의 독해력

길고양이 한 마리를 집안에 들였다.

“들였다.”라고 했지만, 반 이상은 “스스로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어쨌든 한 식구가 된 그 녀석에게 ‘레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고양이라는 생물에 대해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녀석은 인간과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녀석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나와 달리 아내에게는 하염없이 조잘대며 자신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것은 흡사 외국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처럼 인간의 언어를 터득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아내는 유창한 한국어로, 이 녀석은 다른 고양이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발성과 악센트를 가지고 아내에게 다가가고 노력했다. 그렇게 서너 달이 지나자 녀석은 어느 정도 인간의 언어를 습득했다는 듯이 몸짓과 표정으로 아내와 소통하고 있었다. 가끔 나에게도 뭐라 뭐라 웅얼대기도 하는데 멀뚱한 내 표정을 바라보며, 참 너와는 대화가 안 된다는 듯 돌아서곤 하였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간단히 기사를 요약해보면, 한국인의 ‘문해력’ 즉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낮아졌다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옮겨보자면 ‘불가사의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느 학생이 ‘불가사의’는 ‘불가사리’를 잘못 얘기한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또 어느 대학에서 “금일, 쪽지시험”이라고 공지했는데 왜 금요일이냐고 묻는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얼핏 기사 내용만으로 보면,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며 핀잔부터 앞세울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서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과연 요즘 누가 “불가사의하다”라는 말을 쓰며, “오늘”이라는 말 대신에 “금일”이라고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한동안 독서모임이 유행하더니 최근 들어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글을 쓴다는 작업이 일부 지식인의 영역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었다. 평범한 일상일지언정 개인의 시선으로 표현하고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관심에 일조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성인을 대상으로 ‘글쓰기교실’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 모인 친구들은 나이도 제각각이었으며 하는 일도 다양했다. 수업을 하다보면 우리 문학 작품 중에 여러 문장을 발췌하여 그 느낌을 얘기하거나 작품 속에 어휘를 활용하여 문장을 새롭게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곤 하는데,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단어와 어구를 되문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때마다 의외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진솔했고 단순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니 쓸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건 당연했다.

함께 글쓰기 공부를 하다보면 선배 작가들의 숨 막히는 문장 속으로 흠뻑 빠져들곤 한다. 그 와중에 나는 김승옥 선생의 ‘무진기행’을 자주 권했다.

“버스가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 Mujin 10km’라는 이정비(里程碑)를 보았다. 그것은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가의 잡초 속에서 튀어나와 있었다.”로 시작하는 ‘무진기행’, 서른 쪽 남짓되는 책갈피마다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어휘들과 문장들을 보고 있으면 언제나 가슴이 설렜다.

“우리는 논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언젠가 여름밤, 멀고 가까운 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마치 수많은 비단조개 껍데기를 한꺼번에 맛 부릴 때 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나는 그 개구리 울음소리들이 나의 감각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느끼곤 했었다.”(26p)

내가 이 문장을 읽어주면서 감격스런 표정으로 어쩌냐고 물으면 글공부 친구들은 명확히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별로 감흥을 못 느끼겠다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아…!”라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눈시울을 붉히는 친구도 있었다. 사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청각의 경험을 갖고 있어야 했다. 우선 한여름밤에 개구리들이 집단으로 울어대는 소리를 떠올릴 수 있어야 했고, 누군가가 수많은 조개들을 한꺼번에 씻거나 부벼대는 소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했다.

다음 문장은 어떠한가.

“왜 그렇게 못 견디어 했을까. 별이 무수히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고 있던 옛날 나는 왜 그렇게 분해서 못 견디어 했을까.”(27p)

어느 젊은 날, 한 남자의 가슴속 응어리가 사무치듯 내게로 밀려오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문해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독해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가을이 깊어졌다. 다른 계절을 보낼 때보다 유독 가을을 보낼 때 가슴이 시리다. 왜 그랬을까. 그런 내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레오’가 꼬리를 살랑대며 한마디 거든다. “왜~웅 웬웅” 그리고 그 뜻을 헤아려보았다.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고…” AF



『무진기행』
저자 김승옥
출판사 더클래식



글쓴이

『월간에세이』 편집위원

명상을
밧는다



내 생각 바라보기

여러분은 ‘바라본다’는 말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바라보는 일에는 최소한 바라보는 주체와 바라보여지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보는 주체와 바라보여지는 대상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바로본다’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바라보여’지는 무엇은 ‘바라보는’ 주체일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바라보는 대상은 그걸 바라보는 나와는 다른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요.

요즘 사람들 사이에 흔한 증상인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명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생각이 일어나 그것에 사로잡히는 게 원인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이 견잡을 수 없이 일어나 통제할 수 없게 되지요. 사람들의 이러한 성향은 원시시대 때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주변으로부터의 위험에 대비해야만 했던 나약한 인간의 숙명 때문에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향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져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생각보다 나쁜 생각이 더 강합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사람들은 즐거운 일보다 같은 정도의 나쁜 일을 3배의 세기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만원을 버는 것보다 100만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3배 슬픈 일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인생에서 기쁜 일보다 3배의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런 성향이 강해져 결국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빠지게 되겠지요.

여러분은 원치 않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그것을 억누르나요? 아니면 회피하려 하나요? 그런 생각들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하면 할수록 그 생각들이 더욱 커져서 오히려 더 말려 들어가는 경험을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생각은 원래 그렇습니다. 생각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하면 오히려 그 생각에 에너지를 주어서 그 생각이 더욱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 핑크색 코끼리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았나요? 자 그러면 이제는 5초 동안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어떤가요? 핑크색 코끼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나요?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핑크색 코끼리가 더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생각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리나 냄새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은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원래부터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하는 것은 생각이 실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실체가 없는 생각에 대해 실체가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는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 한다면 처음부터 대처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처방법일까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생각을 바라본다는 건 생각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일반인들은 원치 않는 생각을 처리하기 위해서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방법 외에는 알지 못하지만, 명상을 하는 사람은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는 제3의 방법인 생각 바라보기를 합니다.

“생각 바라보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생각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을 억누르는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며, 생각을 회피하는 ‘무관심한’ 태도도 아닙니다. 생각 바라보기는 그 중간의 길입니다. 생각에

자유와 여유를 주면서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는 중립적인 태도인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우리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합니다. 내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나의 삶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서 사라지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전과정을 이해함으로써만 생각의 진정한 극복이 가능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내 생각 바라보기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앉은 자리에서 척추를 바로 세우고 눈과 입을 지그시 다물고, 몸과 마음을 최대한 릴랙스합니다. 심호흡을 3번 가량 하면서 더욱더 릴랙스해 봅니다.

② 주의를 가만히 마음 안쪽으로 돌려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려 봅니다. 여태까지 생각이 곧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를 해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각을 대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바라봅니다.

③ 생각을 바라보면 어떤 경우에는 생각의 끝자락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가 지속되었다 사라지는 전과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생각을 해석하거나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④ 이런 식으로 충분히 생각을 바라본 후,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트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영화로운 나날



신세대라는 말을 아시나요?

『접속』은 90년대 후반 20대였던 신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입니다. 신세대라 함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소비 분야를 중심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던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 지금으로 치면 ‘힙스터’ 정도에 해당될 것 같아요. 주인공들은 뽀뽀로 서로를 호출하고 PC 통신으로 대화를 나누는 한편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LP판으로 음악을 듣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들며 세련된 취향을 소비하는 이들은 영화 밖 신세대들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동시에 선도했습니다.

라디오 PD 동현(한석규)과 케이블TV 쇼핑가이드 수현(전도연)은 PC 통신 채팅을 통해 만납니다. ‘해피엔드’와 ‘여인2’라는 이름으로 만난 이들은 얼굴도 모르는 상대에게 지나간 사랑과 시시콜콜한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정작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힘들어하는데, 수현은 친구의 애인을 짝사랑하는 중이고 동현은 오래 전 떠난 연인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는 두 사람은 채팅을 통해 서서히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벽돌만큼 두꺼워 보이는 노트북과 잉크젯 프린터, 고대 유물처럼 느껴지는 뽀뽀까지 지금 보면 깜짝 놀랄 만큼 구식이지만 당시에는 최첨단의 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접속』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잘 담아냈습니다. 영화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광장의 바닥을 비추면서 시작하는데요, 수현과 동현이 내리는 비를 보며 극장 앞에서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우연히 스치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벗어나 오프라인에서 첫 만남을 가지는 장소도 극장인 만큼 상당히 중요한 공간인 이곳은 피카디리 극장입니다. 지금처럼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전 단관 개봉하던 시절에는 맞은편에 있던 단성사와 함께 종로 극장가 양대산맥이었던 피카디리 극장은 트렌디한 영화를 주로 상영하던 곳이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죠. 동현이 수현을 내려다보던 2층 카페는 통합입장권전산망이 없던 시절 영화 관계자들이 모여드는 관객들을 보며 흥행을 짐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LP판을 모을 정도로 음악을 좋아하고 라디오 PD라는 직업에 대한 신념도 확고한 동현은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20분에 달하는 곡을 방송하고 윗분들의 눈 밖에 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랑이 보낸 음반을 갑자기 방송에서 틀 정도로 고집스럽기도 하죠. 『접속』이 심어주는 환상은 서울이라는 공간뿐 아니라 방송국 특히 라디오 부스에도 해당되는데, 그래서 동현은 그 어느 곳보다 라디오 부스에 있을 때 특별한 사람 같습니다. 사실 연애,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동현은 결코 긍정적인 인물이라 볼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작가에게 실수하고, 그것을 제대로 회수하지도 않죠.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도 못하고 새롭게 나타난 수현과의 관계에서도 비겁합니다. 그러나 DJ에게 큐 사인을 주고, 자료실에서 음반을 고를 때는 전에 없는 직업인의 위장을 두릅니다. 그것은 아마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뿜어내는 빛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소극적이기는 수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만 보고 주기만 하는 사랑도 있다며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짝사랑을 합리화하는 수현은 친구와 그의 연인 뒤에서 배경처럼 존재하죠. 수현은 학창시절 연극에서 맡았던 배역인 ‘여인2’를 아이디로 삼은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자신의 본심을 숨기는데 능합니다. 자신이 고른 넥타이를 마음에 들어 하는 기철(김태우)에게 정체를 밝히기보다는 그저 슬며시 웃는 것을 택하고, 기철이 벗어놓은 구두에 발을 넣어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마음을 들키기 않고 그저 행인처럼 스쳐가는 것, 그것이 수현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동현과의 대화로 수현의 방식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죠. “잊든가 잊을 수 없다면 가서 당신을 보여줘요”라는 조언에 용기를 내본 수현이 포항으로 기철을 만나러 가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감정에 마침표를 찍습니

다. 우울할 때면 혼자 드라이브를 하며 기분을 전환하는 수현답게 한번 마음을 깨닫고 방향을 바꾼 뒤로는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직진합니다. 바라만 보던 기철에서 늦은 밤 서로를 무장해제시키는 대화를 나눴던 동현에게로 향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은 음악을 다시 만나러 음반 가게로 향하던 시절, 공중전화로 좋아하는 사람의 호출기에 음성을 남기던 시절, PC통신이 연결되는 소리를 들으며 두근거리던 시절에 대한 향수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남는 가장 또렷한 것은 동현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던 수현의 목소리입니다. 정작 만나기로 해놓고는 또다시 움츠러든 동현을 설득시키고 다시 불러 세운 목소리. 자신의 마음을 거절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도 차분히 동현을 향한 감정을 털어놓는 수현은 기철의 뒤에서 ‘여인2’로 남겨져 있던 때와는 분명 다르죠. 이제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솔직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게 하는 수현의 단단한 목소리 덕분에 두 사람의 해피엔딩이 영화가 끝나서도 계속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AF**



영화 『접속』



글쓴이

영화에 대해 쓰고 말합니다. 오늘도 영화 속의 멋진 여성 캐릭터와 그보다 더 멋진 주위의 여성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생각하는 그림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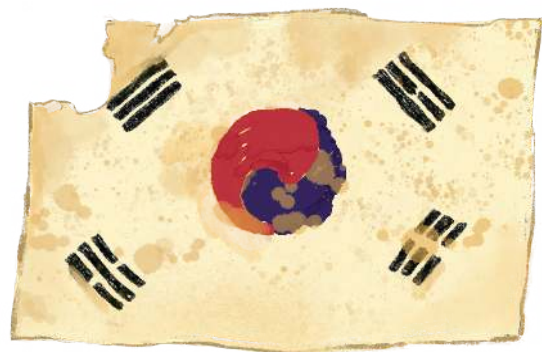
그림 | 강은정 작가

일장기 위에 덧그린 태극기



2009년 5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찰인 진관사의 칠성각을 해체 복원하던 중에 큰 보따리 하나를 발견하여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독립신문, 신대한신문, 조선독립신문, 자유신증보 등 항일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신문을 감싸고 있었던 보따리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덧그려져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신문을 숨겼던 사람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입니다. 초월 스님은 3·1 운동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항상 일본 경찰에게 수차례 체포되어 갖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독립을 향한 그의 열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더라도 항일 독립운동을 지속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문과 태극기를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90년이 지나 발견된 태극기는 대한민국 시련의 역사를 반영하듯,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고, 일부는 불에 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태극과 4괘의 형상은 우리 민족의 쓰러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처럼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을 상징하는 그 어떤 것도 용인되지 않던 시대에서 초월 스님은 일장기 위에 당당히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일장기 위에 덧칠된 태극기는 언젠가는 일본을 누르고 다시 일어나 반드시 독립을 이루겠다는 초월 스님의 굳은 결의의 표상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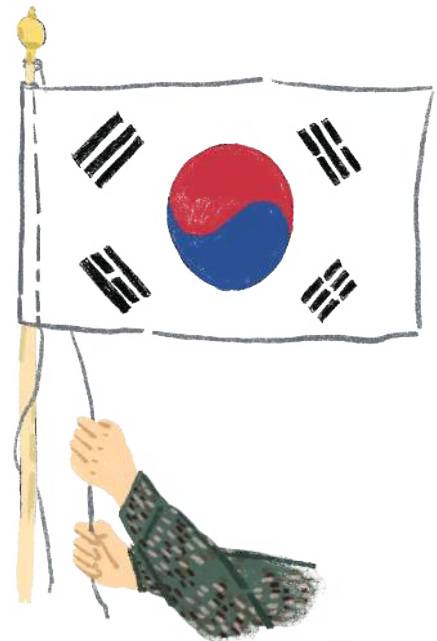




신문과 태극기는 초월 스님이 반드시 후세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일종의 타임캡슐이었습니다. 초월 스님의 염원으로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로부터 독립했고,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국기로서 지금도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우리 민족의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중앙의 태극 문양은 만물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모서리의 사괘는 창조와 변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태극기에 담겨있는 정신과 뜻은 여전히 우리 가슴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초월 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냈던 우리 민족의 상징입니다. 태극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기억하고, 태극기에 담긴 애국애민의 정신을 우리는 계승해야 합니다. 매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소중함과 자부심을 되새기길 희망합니다.

공군인 여러분! 우리의 군복과 우리의 마음에 태극기가 올바르게 붙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태극기에 담긴 선조들의 열망과 뜻을 이제 우리가 계승할 차례입니다. AF



공군인의 편지

글 | 상사 이종민(방공관제사령부 제31방공통제전대)


돼지국밥에 소주 한잔해요

아버지 오늘도 직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백신 접종도 최근에 하셨는데 아프신 데도 없으시고요? 최근에 아버지 계시는 동네에서 아버지가 접종한 날짜랑 비슷한 날짜에 유통기한 지난 백신을 접종했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전화 드렸었는데 아무 일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캠핑카 자체 제작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최근에 손녀, 손자들 다 태우고 여행가실 계획으로 차도 바꾸셨는데 얼른 타러 가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초보아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녀손자 이가원, 이윤서는 잘 놀고 하루가 다르게 잘 크고 있습니다. 밤에 안 자고 울어서 잠도 못 자고 항상 안고 재워야 했던 가원이는 어엿한 숙녀가 되어서 이제 혼자서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항상 드레스를 입고 시크릿쥬쥬 공주로 변신합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뭐든지 사줄 수 있는 줄 알아서 제가 곤란할 때도 종종 있긴 하지만요. 윤서는 얼마 전에 콧물이 나고 열이 나서 밤새 안아주고 달래줬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맑게 웃으면서 잘 먹고 잘 놀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안아 달라고 하면 언제나 ‘오케이!’인 줄 알아서,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플 때도 중

중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빠라고 불러주는 소리가 너무 좋고 그 때문인지 제가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제 뜻대로 안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항상 아이들 의견도 듣고 응원해주고 이해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나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늘어나네요. 요즘 부쩍, 아버지께서 가족들을 위해 양보하고 헌신하셨던 모습이 이해됩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아버지 말투와 행동을 따라할 때가 있네요.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한다고 해도 자식은 아마 부모 마음을 백퍼센트는 이해하진 못할 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다음에 부산 내려가면 아버지 좋아하시는 돼지국밥에 소주 한잔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안 좋아하시니까 며느리랑 따로 맛있는 음식 드시러 가라고 하고 아버지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내년 여름에는 코로나가 사라져서 예전처럼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랑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잘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트라넷 : cjhminam1210@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책읽는 공군

글 | 종사 최진우(방공관제사령부 제31방공통제전대)

허식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좋아하는 취미가 뭐냐는 질문에 ‘클래식 감상’이라고 대답하면 오는 반응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가식’ 또는 ‘고상한 취미’. 억울하지만 클래식은 모차르트의 시대가 지나면서 서민의 유희 문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으로 인해 음악을 들어보고자 할 때 거부감을 느낍니다. 클래식 접근에 있어 첫 난관이죠.

그래도 다행히 첫 난관을 이겨내고 관심을 가져 곡 추천을 바라는 사람들도 간혹 생깁니다. 하지만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취향 또한 다르기에 누군가의 추천만으론 처음 들었을 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랑의 시작’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듣는 것이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단순히 배경음악으로서 클래식을 듣는 것이 아닌 가슴이 뛰게 하는 곡을 찾는 것, 그리고 온전히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중요성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는 1961년 강원도 묵호에서 태어나 대학시절부터 클래식을 음반으로 즐긴 음악 애호가입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까지 범위를 넓혔고 현재는 경향신문의 음악 담당 선임기자로, 그리고 비평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음악 해석에 있어 인문적인 견해를 접목시켜 책도 저술하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더 클래식』은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총 101곡을 선정하여 세 권에 나눠 소개합니다. 1권은 바흐부터 베토벤까지의 고전주의를, 2권은 슈베르트부터 브람스까지의 낭만주의를, 3권은 말러에서 쇼스타코비치까지의 20세기 음악을 분류하여 작성했으며 여러 나

라의 주요 음반 전문지를 참조하고 음반 관련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곡별로 추천 음반을 세 장씩 선정하여 작성했습니다.

정말 좋은 점은 이 책에서 곡의 해석을 위해 어려운 음악적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작곡가의 삶, 시대의 배경, 전세계 연주자의 이야기 등을 사용하여 곡을 다룹니다. 가볍게 읽는 역사책의 느낌으로 이 책을 읽으신다면 적은 거부감으로 음악을 접할 수 있고, 음악에 숨은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자가 서두에 던진 ‘중요한 것은 실제로 듣는 것이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클래식을 듣기 위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음반을 사서 듣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3초면 원하는 음악을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클래식은 학습의 대상이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가볍게 즐기는 애호가들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AF](#)



『더 클래식』
문학수 지음
돌베개 펴냄

수용의 미학

글 | 중위 김수용(공군본부 정신전력과)

실수를 수용하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가진 취미가 있다. 바로, 색칠 놀이다. 가까운 다이소나 아트박스에서 2천원 남짓의 컬러링북과, 스탠들리 48색 색연필을 구매하고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방에 들어온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몇 시간 동안 색칠하고 있으면, 불만과 짜증으로 가득하였던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이렇게 즐거운 색칠놀이의 순간에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있다. 바로, 색을 잘못 칠했을 때다. 미리 정해놓았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솟구친다.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잘못 칠한 색에 맞춰 다른 색을 계속 칠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색의 배치가 어색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구역을 어느 정도 칠해놓고 나면, 나름 보기에 괜찮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하면, 잘못 칠한 구역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아름답다. 예상하지 못한 큰 실수에 당황했던 표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은 미소로 변한다. 잘못 칠한 색도 큰 도화지 안에서는 꽤 좋은 색이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색칠놀이가 나에게 따뜻한 위로로 남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색칠놀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 그려진 색깔처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힘든 일을 경험한다. 큰 실수가 우리 인생의 오점이 될 것 같고, 이 오점으로 인하여 인생 전체의 그림이 망가질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힘들어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색칠

놀이처럼 간단하다. 실수를 담담히 수용하고, 내가 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내가 저지른 실수가 계속 생각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다. 그래도 인생의 그림은 계속 그려나가야 한다. 그리다 보면, 실수는 마치 설계되었던 일처럼, 우리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처럼 실수가 행운이 되는 경우를 흔히 세렌디피티(Serendipity)라고 한다. 유익하지 않았던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낸다. 과자 공장 견습생이 실수로 초콜릿이 담긴 그릇에 뜨거운 우유를 쏟아 만들어진 가나슈. 치즈 제조를 잘못하는 바람에 곰팡이가 핀 것이 기원이 된 고르곤졸라. 성능이 좋지 않았던 접착제를 종이에 사용하여 만들어진 포스트잇.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위대한 발명품들인데도 그 출발점은 모두 실수였다.

수많은 점들로 이뤄진 직선의 인생을 그리다가 우리는 종종 선을 벗어나는 점을 찍곤 한다. 하지만, 선을 벗어나는 점과 그동안 그려왔던 직선의 점들을 연결하자. 연결된 선은 2차원을 벗어난 3차원의 도형으로 완성되어 있을 것이다. “실수하면 어때? 실수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잘못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 자신을, 그리고 모든 걸 망쳤다고 자책하는 동료에게 이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 실수에서 딛고 일어나 인생이라는 한 장의 도화지를 완성했을 때, 우리의 실수는 때로는 보석처럼 마음에서 반짝이고 있을 것이다. AF

마음의 소리

정창재

Cha4**@naver.com

공군인을 양성하는 정튼튼 상사의 이야기가 특히 재밌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며 꼭 필요한 각종 제식과 도수체조, 군대 예절, 유격훈련을 지도하는 정 상사의 집념이 참된 공군인을 양성하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훈련 기간이지만, 군인정신과 공군인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교육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AF. 정튼튼 상사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직접 교육사령부를 찾았는데, 예비 보라매들의 패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훈련이 짧아진 만큼 훈련생들이 더욱 열정적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좋은 소식 많이 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열

blusky**@naver.com

교통 사고로 입원한 저에게 작은 딸아이가 월간 공군 10월호를 꺼내줬습니다. 표지에 부활호를 보는 순간 무언가 강렬한 힘을 느꼈습니다. 또, 최인아 대표가 작성한 김동우 저자의 책 소개도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군과 월간공군이 되길 응원합니다.

(AF. 임대열 님, 크게 다치신 것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월간공군이 작은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하루 빨리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춘임

leechoon12**@naver.com

이번 호에서는 기획특집으로 실린 '미라클 작전 요원 인터뷰'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 뉴스로 들었던 미라클 작전의 세부 과정이 궁금하던 차에 이번 기사가 더욱 반가웠습니다. 전쟁터를 뛰어넘는 위험한 지역에서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한 임무 완수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던 우리 공군의 생생한 활약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공군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희망의 날개가 되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길 염원합니다.

(AF.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공군'을 떠올리면 '신뢰'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엽서로 보내주시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E-Book 자료관(www.afzine.co.kr) <독자 의견> 코너에 올려주세요.

(매월 15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5 2 1